

식품·화장품·기름값... 끝 모를 물가인상

계란·닭고기 다시 상승세...무·양배추 평년비 70% ↑

저가 항공 국내 운임 5~11%·기름값도 13% 올라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생활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계란, 닭고기, 무, 양배추, 당근, 감귤 등 농축산물에 이어 석유, 항공료, 화장품 등도 속속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물가 상승세에 화장품까지 가세 =이미 뿔 대로 뿔 식료품 가격에 이어 화장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는 이달 초 30여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빌리프의 인기 제품인 '다트루크림 모이춰라이징 밤50'과 '다트루크림 아쿠아밤50'은 각각 3만 9000원에서 4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대표 상품인 아이라이너 펜슬은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6.7% 올랐고, 나이트 시리즈 아이라이너는 3만20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6.3% 인상됐다.

◇계란·닭고기값 상승세...무·당근·양

배추는 평년의 70% =미국산 계란 수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또 들쭉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일 기준 계란 한판(30개 특란 기준) 평균 소매가는 7299원이다. 1개월 전(7826원)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5440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비싼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계란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춤하는 듯하던 닭고기값도 다시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1kg에 2100원 수준이던 육계 생계 가격은 지난달 하순 1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가파르게 올라 지난 8일 다시 2200원까지 치솟았다.

채소도 한번 오른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축 물량 공급과 수입 등으로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



년에 비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aT 집계 기준으로 배추 1포기 가격은 15일 4089원으로 평년(3017원)보다 35.5% 비싸다.

양배추는 1포기에 5101원으로 평년(2891원)보다 76.4% 더 주고 사야 한다. 무 1개는 2240원으로 가격이 평년(1329원)보다 68.5% 높고, 당근 1kg(무세척)은 4284원으로 1개월 전(5264원)보다는 떨어졌지만 평년(2456원)과 비교하면 74.4% 비싸다.

◇차·비행기 타기도 비겁다...석유류·항

공사 ↑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최근 두 달 새 일제히 국내선 기본운임(공시운임)을 올렸다. 전에는 LCC 5개사 중 가장 먼저 국내선 전 노선의 운임을 1월 23일부터 인상했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부산~제주 노선에서 주말·성수기·탄력 할증 운임이 약 5% 올랐다. 진에어의 뒤를 이어 티웨이항공은 2월 24일부터 김포·대구·광주·무안~제주 등 국내선 전 노선의 운임을 5~11%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26일부터 김포·제주~제주 노선에서 최대 10.6%, 에어부산은 이달 27일부터 부산·김포·대구~제주, 부산~김포 노선에서 최대 6.7%의 운임 인상에 동참한다.

제주항공은 이달 30일부터 김포·부산·제주·대구~제주 노선 운임을 최대 11% 올리기로 했다.

기름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이달 초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는 13.3% 올라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는 2011년 11월(16.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반대”

여성경제인협 광주지부 성명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부(회장 이숙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중국 업체로 매각에 반대한다”며 금호타이어 매각을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여경협 광주지회는 “매각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차라리 차기정권으로 넘겨서 매각을 공정하게 재추진 하는 게 나을 것이다”고 채권단을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매수권 행사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컨소시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 한 번 하지 않고 컨소시엄 허용을 불가했다”며 “이는 우선매수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블스타의 자산규모(약 1조 2000억)는 금호타이어(5조원)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후순위 업체인데다 인수자금도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며 “더블스타의 컨소시엄은 허용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화질 종결자 삼성 QLED TV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김현석 사장이 21일 서울 역삼동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린 '삼성 QLED TV 미디어데이'에서 가장 최신의 디스플레이 기술인 퀀텀닷을 기반으로 표현하는 화질 종결자 Q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합의안 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20일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노사는 임·단협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원들의 피로감이 컸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점과 최근 매각 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가 사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재교섭을 통해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월 22

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2.5% ▲2017년 경영목표 달성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가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등을 잠정 합의했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가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8.38 (+21.37)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 코스닥 609.73 (+0.62) ↑ 환율 (USD) 1120.30원 (+0.20)



2178.38...코스피 천장 뚫었다

외국인 매수 행진...5년8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21일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외국인 순매수 복귀에 힘입어 장중에 2,180선마저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37포인트(0.99%) 뛰어오른 2178.38에 거래를 마쳤다. 사상최고치와 불과 50포인트만 남겨졌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2228.96(2011년 5월2일)이었다. 이는 2011년 7월 8일(2180.35)이후 5년8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다. 장중 최고가는 2181.99였다. 2015년 4월24일(장중 고가 2189.54)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94포인트(0.28%) 오른 2162.95로 출발했다. 외국인의 장중 매수 전환에 힘입어 2170선을 넘었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발판으로 2,180선까지 돌파했다. 외국인은 하루만에 매수우위로 복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3614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틀전까지 10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왔다.

개인이 2335억원, 기관은 1854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김용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규모 1위 삼성전자(1.58%)는 1.58% 오른 212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기준 사상최고가다. 장중에는 213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대차(8.63%)와 네이버(6.48%), LG화학(4.24%), 현대모비스(3.05%) 등 자동차와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시총 상위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64%), 서비스업(2.00%), 운수창고(1.99%), 전기·전자(1.32%), 의약품(1.24%), 화학(0.99%) 등이 강세였다. 이에 비해 보험(-0.98%), 철강·금속(-0.90%), 은행(-0.76%), 금융업(-0.59%) 등은 내렸다. 코스피 전체 거래량은 2억 9928만주, 거래대금은 5조3871억원이었다. 시가총액은 141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쏘울’ 제주 우도 렌트카 변신

전기차 100대 판매

기아자동차 전기차 쏘울 EV가 제주 우도(牛島)를 누빈다.

기아차는 제주 우도의 첫 렌터카 업체에 쏘울 EV 100대를 판매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인 ‘우도전기렌트카’는 우도 최초의 현지 렌터카 업체로, 이번에 쏘울 EV가 영업용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우도의 첫 렌터카’ 타이틀을 얻게 됐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도는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 아래 순수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쏘울 EV와 함께 출범한 전기차 렌터카 사업은 우도의 탄소 없는 섬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등 강점 덕분에 쏘울EV가 우도의 첫 렌터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쏘울 EV와 함께 여행지에서 즐거운 추억도 쌓고 쏘울 EV의 높은 상품성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불을 전월남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